

「鏤板考」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An Evaluation of the Academic Levels of the Books entered in Nupango,
an annotated Classification of Union Catalog of Printing Blocks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2.3 역사적 가치 |
| 2. 「鏤板考」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분석 | 3. 현대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 기준과의 비교 |
| 2.1 내재적 가치 | 4. 결론 |
| 2.2 사상적 가치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풍석 서유구 등이 정조 20년(1796)에 편찬한 분류순 전국책판목록인 「鏤板考」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누판고」에 수록된 서적의 수준 평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목록의 성격을 감안해도, 현대의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훌륭한 책들이라 할 수 있다.

要語 : 풍석, 서유구, 누판고

< ABSTRACT >

The writer investigated the academic values of the titles based upon book annotations included in *Nupango*, or An Annotated Classification of Union Catalog of Printing Blocks, which was published by Pungseok Seo Yu-gu's in 1796. This paper examined various types of evaluative methods adopted in Nupango, and then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syly@ewha.ac.kr)

접수일: 2005년 9월 7일 최초심사일: 2005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3일

compare them to the modern general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Analyzing the nature of the catalog and the particular historical situation, the academic qualities of books listed in *Nupango* are even more excellent than the modern criteria for good books.

Key words : pungseok, Seo Yu-gu, nupango,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K C I

1. 서론

「鏤板考」는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榘)(1764-1845) 등이 정조의 왕명으로 정조 20년(1796)에 편찬한 전국책판해제목록이다. 이 「누판고」는 정조 2년(1782)에 전국에 유서(遺書)를 내려 개인과 공공기관에서 소장한 책판목록을 올리게 하여 규장각에서 그 실존 여부를 살펴보고, 그 중외장판부(中外藏板簿)를 기록하게 한 데서¹⁾ 기원한다. 이 「누판고」가 「고사촬요(攷事撮要)」 등 다른 역대 책판목록과 크게 다른 특징은 각 도군(道郡)별 순으로 만든 책판목록이 아니라 경사자집의 사부분류법에 의해 배열된 점과 각 저작에 해제를 붙인 점이다.²⁾

「누판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리재철, 천혜봉, 김윤식, 박문열 등의 것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누판고」에서 채용한 사분법 분류체계 및 분류항목의 특징, 개판시기, 개판상황, 저자문제, 「누판고」와 「경외누판(京外鏤板)」과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누판고」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누판고」에는 수록된 서적에 해제를 붙였는데, 상당수의 해제에서 그 서적의 내용이나 저자에 대해 평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평가 내용은 유형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도 합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선 후기에 어떤 성격을 지닌 책들이 출간되었으며, 당시 선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학문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도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누판고」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거기에 수록된 도서의 해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형별로 유취해 본 후에,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윤식, “누판고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2)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제7집(1976), 580-598

2. 「누판고」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분석

「누판고」의 각 저록의 해제에서는 그 서적의 내용이나 저자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누판고」에 수록된 610종의 도서의 해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은 대략 240여종(약 40%)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분류순 선정도서 해제목록인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에 수록된 서적의 선정기준(전체 472종 중 260종 55%)에 비하면 다소 낮은 비율이지만, 수록된 상당수의 서적에 대해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누판고」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인 수준을 1) 내재적 가치, 2) 사상적 가치, 3) 역사적 가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내재적 가치

서적의 내재적 가치란 도서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 주제분야의 서적 중에서 문장 또는 내용의 수준이 타 서적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1) 내용이 우수한 경우, 2)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집대성한 경우, 3) 특정 서적의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4) 저자의 인물됨이나 문장을 중시한 경우, 5)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지침서적인 성격을 띤 경우, 6) 내용적인 가치가 없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내용이 우수한 경우

목록에 수록된 서적에 해제를 붙이면서 그 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서적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목록편찬자의 주요한 업무이다.

「누판고」의 해제에서는 수록된 서적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불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극명하게 판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내용이 뛰어난 서적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들떠 불만한 가치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누판고」의 해제에서 서적의 내용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례비요(喪禮備要)」의 해제에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 상례(喪禮)를 말하는 사람이 이 책을 보고 권계(券契)로 삼는다.”³⁾고 평가하고, 「파한집(破閑集)」의 해제에서는 “고려 한 시대의 뛰어난 문장과 좋은 구절 가운데 지금까지 증거 할만한 것은 대부분 이 책[파한집] 및 최자(崔滋)의 보완집(補閑集)에서 의뢰할 수 있다.”⁴⁾고 하여 「상례비요」, 「파한집」, 「보완집」에 수록된 내용의 우수성을 밝히고 있다.

「고경중마방(高鏡重磨方)」에서는 “위로 반명(盤銘)에서 아래로 낙민(洛閔)에 이르기까지 무릇 잠명(箴銘) 가운데 마음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만한 것은 모으지 않은 것이 없다.”⁵⁾고 해제하였다. 「계몽전의(啓蒙傳疑)」에서는 이황이 저술한 이 책은 널리 여러 대가들의 도설(圖說)과 전주(箋註)를 인용하여 이를 참고한 것이니 역시 첩몽(諫蒙) 중의 첩몽이다.⁶⁾라고 하여 그 내용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불교의 서적 「화엄경(華嚴經)」과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 서유구, 누판고, 보림사, 1968. 경부, 예류 39.

至今東人 言喪禮者 視爲券契

4) 위의 책, 자부, 설가류, 106.

高麗一代名章佳句之至今可徵者 多賴是篇及崔滋補閑集

5) 위의 책, 자부, 유가류, 85.

上起盤銘 下迄洛閔 凡箴銘之可資警省者 無不蒐羅

6) 위의 책, 경부, 역류, 32.

李滉之此書 又博引諸家圖說箋註 而參訂之 蓋亦諫蒙之諫蒙

화엄경(華嚴經)은 부처가 도를 이룬 뒤에 최초로 대승정법(大乘正法)을 말씀하신 것이다. 법신(法身)의 본체를 밝히는 데 능엄(楞嚴)보다 더 잘 말한 것은 없고, 법신(法身)의 용(用)을 밝히는 데는 화엄(華嚴)보다 더 잘 말한 것은 없다.(華嚴經 佛成道後 最初說大乘正法者 明法身之體者 莫辯於楞嚴 明法身之用者 莫辯於華嚴云)⁷⁾

그 책은 선경(禪經)의 자구(字句)를 표거(標舉)하였으며, 널리 여러 사람의 주소(註疏)에서 밝힌 뜻을 인용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불전 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박식한 것이다.(其書 標舉禪經字句 而廣引諸家疏釋旨義 東國佛典中 最爲富博)⁸⁾

이처럼 당시의 유가적인 질서에서 볼 때 이단에 해당하는 불가의 서적에 대해 비하하지 않고 서적 자체의 내용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병학지남(兵學指南)」,⁹⁾ 「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¹⁰⁾ 등이 있다.

2.1.2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집대성한 경우

「누판고」의 해제에서는 수록된 서적 가운데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집대성한 서적에 대해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오선생예설전집(五先生禮說全集)」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도(明道), 이천(伊川), 지수(涑水), 횡거(橫渠), 주자(朱子)의 예설(禮說)을 취하여 정리하고, 편언(片言) 단사(單辭)로서 어록(語錄), 전주(箋註)에 보이는 것까지 수집하여 나열하지 않은 것이 없다.(取明道伊川涑水橫渠朱子禮

7) 위의 책, 자부, 불가류, 152.

8) 위의 책, 자부, 불가류 154.

9) 위의 책, 자부, 병가류, 95.

我國練兵 以是爲律梁

10) 위의 책, 김부, 총집류, 158.

其書 選古今騷賦詩文凡七十六家

說 分門類彙 片言單辭之雜見於語錄箋註者 無不蒐羅)¹¹⁾

위의 해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선생예설전집(五先生禮說全集)」에서 여러 대가들의 학설을 풍부하게 수집한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다.

「독사수필(讀史隨筆)」에서는 “역대 역사의 정치와 교화와 풍속 가운데 선을 일깨우고 악을 징계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그 정수를 모아 자신의 견해로 판단한 것이다.”¹²⁾라고 하여 역대의 관련 서적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종합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의학정전(醫學正傳)」의 해제에서는 “모두 역대 명의의 말을 채집한 것이다.”¹³⁾라고 해제하여 그 수집의 풍부함을 밝혀 주고 있다. 이밖에 이 사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역학도설(易學圖說)」¹⁴⁾ 「사례의(四禮儀)」¹⁵⁾ 등이 있다.

이처럼 「누판고」에서는 수록된 서적 가운데 내용이 우수한 경우 거기에 걸맞은 평가를 내려줌으로써 후학들이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내용이 우수한 서적과 더불어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집대성한 내용들을 함께 평가하면서, 후학들이 독서하는데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2.1.3 특정 서적의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이 유형은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 독서를 할 경우 함께 읽어야 할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서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적은 다음과 같다.

「삼례의(三禮儀)」의 해제에서 “김장생(金長生)의 「상례비요(喪禮備要)」가 관

11) 위의 책, 경부, 예류, 38.

12) 위의 책, 사부, 사평류, 75.

取歷代史政教風俗之可資勸懲者 掇其菁華 斷以己見

13) 위의 책, 자부, 의가류, 98.

皆採輯列代名醫之語

14) 위의 책, 경부, 역류, 33.

蒐集古今易家諸圖 雜采經傳箋註之說以系之

15) 위의 책, 경부, 예류, 43.

採文公家禮及東儒禮說中合於時宜者

례(冠禮), 혼례(婚禮), 제례(祭禮)가 빠졌으므로 이 책을 써서 보충하였다.”¹⁶⁾고 하여 「상례비요」의 내용을 대한 보충적인 서적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최자의 「보한집(補閑集)」에서는 “이인로가 수집하지 못한 것을 증보하여 모았고, 불자와 아녀자들의 시구(詩句) 중에 담소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을 보충하고 편집하여 함께 수록하였다.”¹⁷⁾고 해제하여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의 내용을 보충해서 만든 책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익(趙翼)의 「주서요류(朱書要類)」의 해제에서 “이황(李滉)이 지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가 너무 빠진 것이 많고 간략하여 다시 더욱 긴요한 것을 뽑아서 조목별로 편찬한 것이다.”¹⁸⁾라고 하여 이황의 「주자서절요」에 대한 보충적인 저작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예기보주(禮記補註)」¹⁹⁾ 「탐라지(耽羅志)」²⁰⁾ 등이 있다.

학문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주제이든 가장 훌륭한 서적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널리 알려진 책만으로는 그 의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누판고」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서적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학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1.4 저자의 인물을 중시한 경우

목록의 편찬 시에 서적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책의 저자에 대한 평가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누판고」의 해제에서는 저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상당

16) 위의 책, 경부, 예류, 42.

以金長生喪禮備要 闕冠婚祭禮 爲此以補之

17) 위의 책, 자부, 설가류, 107.

補輯李仁老之所未收 浮屠兒女之詩句可資談笑者 亦並收錄

18)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68.

以李滉所編朱書節要 猶欠反約 更選其尤切要者 分門彙類之

19) 위의 책, 경부, 예류, 37.

以陳澹集說 間多疏舛 雜採註疏諸家 及東儒節記 而補訂之

20) 위의 책, 사부, 장고류, 71.

翊漢取徐居正輿地勝覽 金淨濟州風土記諸書 而補訂之

히 많이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1) 각 분야의 주요한 인물인 경우, 2) 대문장가이거나 시인인 경우, 3) 저자의 학과나 교우관계를 밝힌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4.1 각 분야의 주요한 인물인 경우

경사자집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해제목록을 편찬하면서 수록된 도서의 저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판고」 역시 각 주제 분야에 수록된 저자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각 주제 분야의 유명한 인물이거나 문장이 뛰어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인물의 문장이나 저술 내용보다도 그 인물의 품성과 위업 또는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 유학의 종주(宗主) 역할을 한 큰 선비에 대해 평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록요어(讀書錄要語)」의 해제에서 “설선(薛瑄)은 명나라 한 시대의 선비의 종주이다. 이 독서록은 모두 그가 몸소 행하고 마음에서 얻은 말들이다.”²¹⁾라고 평가하고, 「모재집(慕齋集)」에서는 저자인 김안국(金安國)이 “기묘당적(己卯黨籍)으로 칩거하여 학도들을 가르치되 한 가닥 바른 학문이 그분의 힘을 입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를 추대하여 당시에 유종(儒宗)이라고 하였다.”²²⁾고 하고, 김집(金集)의 「신독재유고(慎獨齋遺稿)」에서는 김집이 가학으로 전수받은 시와 예의 학문은 참으로 한 시대의 유종(儒宗)이다.²³⁾라고 하여 설선(薛瑄), 김안국(金安國), 김집(金集) 등 한국과 중국에서 한 시대를 이끈 큰 선비들에 대해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

21) 위의 책, 자부, 유가류, 81.

瑄爲有明一代儒宗 是錄皆其躬行心得之言

22)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81.

金安國撰 以己卯黨籍 屏居授徒 一縷正學 賴而維持 推爲當時儒宗

23)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28.

集得家傳詩禮之學 蔚爲一代儒宗

또한 조식(曹植)의 「남명집(南冥集)」에서 “조식은 이황과 더불어 영남지방에서 도학을 창도하였는데 그 이름 또한 비슷하다. 그러나 조식의 학문은 추구하는 길이 다소 차이가 나고 그 문장 또한 기이함을 좋아하고 오만하여 이황처럼 순수하지 않다.”²⁴⁾고 하여 비록 조식이 영남학파의 대 인물이지만 이황보다는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도전(鄭道傳)의 문집인 「삼봉집(三峰集)」의 해제에서 “태조가 개국하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드는 데 모두 그(정도전)의 손에서 나왔다. 권근이 서문에서 그의 시문이 전아(典雅)하고 질담(質淡)하다고 칭송하였다.”²⁵⁾라고 하여 조선시대 전반적인 정책 입안의 기틀을 세운 정도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도전 때문에 죽은 이숭인(李崇仁)에 대해서도 그의 문집인 「도은집(陶隱集)」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숭인(李崇仁)의 시는 그 명성이 중국에까지 들렸으나 정도전이 꺼려해서 마침내 형틀에서 죽었다. … 이색(李穡)이 그의 시를 칭송하기를 “지원스럽고 말끔하여 티끌 한 점 없으며 쟁반 위를 구르는 구슬과 같고 호리병 속에 담긴 얼음과 같다”고 하였다.(崇仁之詩 名聞中華 而其爲鄭道傳所忌 卒死桁楊 … 李穡稱其詩 灑落無一點塵 如走盤之珠 貯壺之氷)²⁶⁾

이처럼 당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숭인이 정도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누관고」에서 조선개국에 항거한 인물과 조선의 개국공신의 문집도 수록하면서, 공정하게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²⁷⁾ 「하서집(河西集)」,²⁸⁾ 「농암집(農巖集)」,²⁹⁾ 「국포집(菊圃集)」,³⁰⁾ 「오

24)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88.

植與李滉 倡明道學於嶺之左右 名亦相埒 然植之學 畦逕差異 其文亦好奇驚高 不似滉粹然於布帛菽粟也

25)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3.

立經創制 皆出其手 權近序 稱其詩文 典雅質淡

26)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2.

리문집(梧里文集)」³¹⁾ 등 여러 종이 있다.

2.1.4.2 대문장가이거나 시인인 경우

「누판고」의 해제에서는 당대에 뛰어난 문장가이거나 시인에 대한 평가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시대의 대문장가인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稿)」와 이색(李穡)의 「묵은집(牧隱集)」의 해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현의 시는 화려하고 밝고 우아하여 삼한의 꼭 막힌 비루함을 탁 트고 벗어났으니 의당 동방 이천년 동안 최고의 명가이다.(故其詩華豔昭雅 快脫三韓僻滯之陋 當爲東方二千年來第一名家)³²⁾

이색의 문장과 경술은 고려에서는 후경(後勁)이라 하고 조선에서는 전우(前喁)라고 하니 그 후 사백년 동안 가진 힘을 다하여 새롭게 바꾸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내 그보다 우선할 사람이 없다.(穡之文章經術 在勝國爲後勁 在本朝爲前喁 後四百年之中 殫力翻新者 終莫能先選)³³⁾

이처럼 조선시대 사대부 문장의 표본적인 역할을 한 이제현과 이색의 문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당대의 뛰어난 시인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은(朴聞)의 「읍

27) 위의 책, 자부, 불가류, 154.

其所周旋往復 無非一時名公 則南渡一種士大夫 淪於禪學 槩可見矣

28)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88.

麟厚 道學節義 炳烺今古

29)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52.

昌協 研思經術 而其文亦能曲備作家體裁 不墮於語錄陣臼 世以比宋之眞德秀

30)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60.

近世作家中 頗矯厲自喜 時稱許穆後初有

31)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06.

元翼 以宿德偉烈 爲一世之望 不僅以文學稱 而其奏議章疏 率多經邦大猷 自足占三不朽之一

32)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0.

33)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1.

취헌유고(攄翠軒遺稿)」에서 “박은의 시는 세간에서 동방의 시성(詩聖)이라고 추대한다.”³⁴⁾고 하고,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집(東岳集)」에서는 “그의 시는 세간에서 동방의 대가라고 추대한다.”³⁵⁾고 하였다. 또한 홍언충(洪彦忠)의 「우암문집(寓菴文集)」에서는 “그가 박은(朴聞), 이행(李荇), 정희량(鄭希良) 과 함께 시가사결(詩家四傑)이라고 한다.”³⁶⁾고 하였으며, 노수신(盧守愼)의 「소재문집(蘇齋文集)」에서도 “노수신의 시는 정사룡(鄭士龍), 황정욱(黃廷域) 과 함께 당시 삼대가라고 일컫는데 수신의 시가 가장 빼어나다.”³⁷⁾고 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권필(權韜)의 「석주집(石洲集)」에서는 “권필의 시가 당시에 백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라고 추대하였다.”³⁸⁾고 해제 하였으며, 이밖에도 최립(崔崧)의 「간이문집(簡易文集)」에서도 “국조의 작가들을 두루 논할진대 종당 최립이 가장 으뜸이다.”³⁹⁾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대시인인 박은(朴聞), 이안눌(李安訥), 홍언충(洪彦忠), 노수신(盧守愼), 권필(權韜) 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 대문장가이지만 글로 인해서 화를 입은 예로 김종직(金宗直)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그의 문집인 「점필재시집(佔畢齋詩集)」에서 “김종직은 가학(家學)을 전수 받아 문장과 경술이 당시의 으뜸이었지만 그의 유희(遊戱)하고 의방(擬倣)한 저작으로 인해 마침내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으니 문인이 일을 좋아한 화이다.”⁴⁰⁾라고 하여 김종직이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세조의 왕위찬탈을

34)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9.

聞詩 世推爲東方詩聖

35)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25.

其詩世推爲東方大家

36)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9.

與朴聞李荇鄭希良 號爲詩家四傑

37)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94.

守愼之詩 與鄭士龍黃廷域齊名 時稱三家 然守愼特高占一格 非黃鄭班也.

38)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29.

韜之詩 時推百年來初有

39)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97.

歷論國朝作家 終當以崧爲首

40)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6.

宗直得家傳之學 文章經術 爲時冠冕 其以遊戱擬倣之作 卒睹泉壤之禍 則亦文人好事之禍也

비난하는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었다가 화를 입은 예화를 들면서 후학들에게 경계를 하도록 환기시키고 있다. 이밖에 정개청(鄭介淸)의 문집인 「문재우득록(困齋愚得錄)」에서는 “태생이 미천하여 …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할 것이 없으나, 그가 치도(治道)와 학문(學問)을 논한 저작들을 모으면 그 분량이 책을 낼만큼 많다.”⁴¹⁾고 하여, 태생이 비록 미천해도 그의 학문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충암집(沖庵集)」,⁴²⁾ 「입암집(立巖集)」,⁴³⁾ 「형재집(亨齋集)」⁴⁴⁾ 「서계집(西溪集)」⁴⁵⁾ 「서애문집(西厓文集)」⁴⁶⁾ 「매산집(梅山集)」,⁴⁷⁾ 「청하집(靑霞集)」⁴⁸⁾ 등 여러 종이 있다.

2.1.4.3 저자의 학파나 교우관계를 밝힌 경우

「누판고」에서 책의 저자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가운데 저자의 사제관계 또는 친분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대략 특징적인 사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남학파의 영수인 이황(李滉)의 문인이나 그를 흠모하거나 친분을 맺은 인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예로 유운룡(柳雲龍)의 문집 「겸암일고(謙

41)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01.

介淸起自微賤 … 其人不足言 而顧其論治論學 哀然盈卷 .

42)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82.

然以集核之 其修辭之善 當爲己卯諸賢之冠

43)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85.

齊仁當明宗時 翺翺藝苑 其白馬江賦 尤膾炙一時

44)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4.

太祖開國 歷稱四朝 以文章鳴

45)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48.

李匡呂稱其詩 當與李穡 朴闕 崔岾 任叔英 爲國朝五大家云

46)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02.

李滉門人 … 當時 草創潤色之功 推爲第一

47)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61.

以文學名於嶺南

48)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34.

少學崔命龍 晚從 金長生游 以文學名南方

菴逸稿)에서 “유운룡이 유성룡(柳成龍)의 형이며 이황(李滉)의 문인”⁴⁹⁾임을 밝혀 주고 있으며, 김릉(金隆)의 『물암집(勿巖集)』에서도 “이황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⁵⁰⁾고 하여 이황의 문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우복문집(愚伏文集)』,⁵¹⁾ 『오봉집(梧峰集)』⁵²⁾ 등에서도 이황의 문인이거나 그를 흠모한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기호학파의 영수인 이이(李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엽(鄭燾)의 『수몽집(守夢集)』에서는 “정엽(鄭燾)이 어려서 송익필(宋翼弼)을 따르고 나중에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⁵³⁾고 하고, 이이와 성혼의 억울함에 대해 상소한 이귀(李貴)의 『신원우울양현소(伸冤牛栗兩賢疏)』에서도 이귀가 이이의 문인임을⁵⁴⁾ 밝히고 있다. 이임전(李任鍊)의 『명고집(鳴皋集)』에서도 이임전이 성혼(成渾)과 이이와 함께 유학하였다⁵⁵⁾는 말을 하고 있다.

이밖에 이황의 주리론(主理論)과 이이의 주기론(主氣論)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성혼(成渾)의 문인임을 밝힌 경우도 있는데, 오윤겸(吳允謙)의 『추탄집(楸灘集)』⁵⁶⁾과 윤황(尹煌)의 『팔송봉사(八松封事)』⁵⁷⁾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9)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02.

成龍兄 李滉門人

50)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02.

遊李滉之門

51)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14.

經世少從柳成龍 私淑李滉之學 … 率從朱子書中得來

52)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16.

之梯 生後於李滉 慕滉學甚篤

53)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11.

燾少從宋翼弼 既又游李珥之門

54)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26.

貴珥之門人也

55)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12.

少從成渾李珥游

56)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23.

成渾門人也

57)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24.

成渾門人也

소론(少論)의 대표적인 인물인 윤拯(尹拯)과 박세채(朴世采) 등의 문하에서 수학한 인물도 있는데, 박태한(朴泰漢)의 「박정자유고(朴正字遺稿)」에서 윤拯의 문인임⁵⁸⁾을 밝히고, 김간(金幹)의 「후재집(厚齋集)」에서 박세채의 문인임⁵⁹⁾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신응시(辛應時)의 문집인 「백록집(白麓集)」에서는 “응시가 박순(朴淳), 정철(鄭澈), 성훈(成渾) 등과 유학하였는데 문행(文行)으로 유명하다.”⁶⁰⁾고 하여 저자의 교우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2.1.5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지침서적인 성격을 띤 경우

「누판고(鏤板考)」에는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지침서적인 성격을 띤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용성을 강조한 사례로 실학자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陸錄)」에서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있다.

대개 그 책은 옛 일을 참고하고 지금 일을 올바르게 하며, 그 규모와 계획이 세밀하게 잘 정리된 것으로 들어서 조치할만하다. 비록 일찍이 심(心)과 성(性)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근세의 선비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지만 선비가 실용을 궁구하는 데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 (蓋其書 酌古宜今 規劃纖整 可舉而措之 雖未嘗說心說性 如近世儒者之爲 而儒者之實用 究莫加焉)⁶¹⁾

이처럼 실학자 유형원의 서적에 대해 그 수록된 내용의 실용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58)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55.

尹拯門人

59)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58.

朴世采門人也

60)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97.

應時 與朴淳鄭澈成渾等游 以文行名

61) 위의 책, 자부, 유가류, 89.

또한 초학들에 대한 지침서적인 역할을 하는 서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하도(大河圖)」, 「소하도(小河圖)」의 해제에서는 “「역학개몽(易學啓蒙)」 등 여러 책을 바탕으로 모아서 이 책을 만든 것인데, 초학에게 지침이 될 만한 것이다.”⁶²⁾라고 하여 내용이 어려운 주역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해설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박통사신석(朴通事新釋)」의 해제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이 책 및 「노걸대(老乞大)」가 다리역할을 한다”⁶³⁾고 하여 이들 서적의 지침서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쓴 책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효행록(孝行錄)」의 해제에서는 “이제현(李齊賢)이 자서(自序)에서 말이 비속한 것을 꺼리지 않아서 대개 속세의 사람들이 모두 알기 쉽도록 작성한 것이다.”⁶⁴⁾라고 하고, 「기효신서(紀效新書)」에서는 “매 편마다 각각 그림과 설명을 두었으며, 그 말이 대개 구어 같고 문식(文飾)을 가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쉽게 깨우칠 수 있는 것을 취했다.”⁶⁵⁾고 언급하여 이들 서적이 일반인들이 손쉽게 깨우칠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1.6 내용적인 가치가 없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누판고」에서는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심한 경우에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책이라고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있다. 먼저 내용

62) 위의 책, 경부, 역류, 32.

因易學啓蒙諸書 而湊成此圖 可爲初學指南

63) 위의 책, 자부, 역어류, 110.

學譯者 以此篇及老乞大爲津梁

64) 위의 책, 사부, 전기류, 54.

齊賢自序云 辭語不嫌冗卑 蓋欲田野之民 皆得易知也

65) 위의 책, 자부, 병가류, 94.

每篇各有圖說 其詞率如口語 不加文飾 取其易於諭衆也

상에 문제가 있는 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산지(京山誌)」의 해제에서는 “기록한 내용이 자못 번잡하고 잡다하며, 산만하여 체례(體例)가 없다.”⁶⁶⁾고 하여 책의 체례 상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부(選賦)」의 해제에서는 “위로 굴원(屈原)의 이소경(離騷經)에서 아래로 조선의 유명한 인물까지 다루었는데, 고금의 시대 순차가 가끔 뒤엉켜져서 어지러우며,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⁶⁷⁾고 하여 내용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내용상 문제가 심각해서 거들떠 볼만한 가치도 없는 서적이라고 혹평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왕역년통고(帝王歷年通攷)」의 해제에서는 “뜻과 사례가 자못 내용이 얇고 간략하니 족히 상고할 것도 없다.”⁶⁸⁾고 혹평을 하고, 「성천지(成川誌)」의 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천지」는 그 내용이 간략해서 상고하거나 의거할 것이 없다.”⁶⁹⁾고 해제하고, 「학안록(學顔錄)」의 해제에서 역시 “자못 소략하고 거칠어서 볼만한 것이 못된다.”⁷⁰⁾고 혹평을 하고 있다.

「누판고」에서는 비록 간행된 서적이지만, 그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책은 그 사항을 지적해 주고, 내용상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볼 필요도 없다고 냉철하게 평가해 주어서 독자들에게 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66) 위의 책, 사부, 장고류, 71.

志殊蕪雜 散無體例

67) 위의 책, 집부, 초사류, 157.

上起屈原離騷 下訖李朝名家 古今世次 往往錯亂失序

68) 위의 책, 사부, 통사류, 52.

義例頗非略 不足考據

69) 위의 책, 사부, 장고류, 72.

而誌殊非略 不足考據

70) 위의 책, 자부, 유가류, 90.

頗踈糲無可觀

2.2 사상적 가치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적 가치란 유가적 사상 또는 도학과 연계된 서적을 의미한다. 당시 양반지배계층의 독서의 목적이 입신양명(立身揚名)과 도학실현(道學實現)에 있었으므로, 이 사상적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은 유가 질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의미한다. 이 사상적 가치는 1)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의 저작인 경우, 2)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3) 국가 변란 및 충의(忠義) 사상을 담은 경우, 4) 후대에 경계가 될만한 내용을 담은 경우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의 저작인 경우

「누판고」에는 조선후기 지배 이념인 유교의 질서 속에서 유가의 시조인 공자(孔子)를 필두로 하여, 주자(朱子), 정자(程子), 이황(李滉), 이이(李珣), 성혼(成渾) 등 중국과 한국에서 공자의 학문을 집대성한 대학자들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이 유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들의 저작은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수록하고 있다. 경부 총경류의 맨 앞에는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주역대전(周易大全)」, 「서전대전(書傳大全)」, 「시전대전(詩傳大全)」, 「대학대전(大學大全)」, 「논어대전(論語大全)」, 「맹자대전(孟子大全)」, 「중용대전(中庸大全)」 등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수록하고, 그 해제에서 이 책들을 편찬할 때 참고한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학관(學官)에 세워서 선비를 등용하는 제도로 삼는다⁷¹⁾고 하여 당시 선비들

71) 위의 책, 경부, 총경류, 29.

明永樂中 翰林院學士 胡廣等 奉勅撰 易用董楷 董真卿 胡一桂 胡炳文四家之書 書用陳櫟 陳師凱 二家之書 詩用劉瑾通釋 四書用倪士毅輯釋 剡襲釘飪 鹵莽成書 而立之學官 定爲一代取士之制

이 읽어야 하는 과거시험의 기본 교재로서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각 유목(類目)에서는 유가의 대표적인 경전을 맨 앞에 수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 「시집전(詩集傳)」, 「대학장구(大學章句)」, 「논어집주(論語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중용장구(中庸章句)」 등을 수록하고, 어정(御定)에는 역시 주자가 편찬한 「훈의자치통감강목(訓義資治通鑑綱目)」과 주자의 서간문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 100편을 선정하여 편찬한 「주서백선(朱書百選)」⁷²⁾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정자의 「역전(易傳)」, 채침(蔡沆)의 「서집전(書集傳)」, 정현의 「찬도호주주례(纂圖互註周禮)」 등 대학자들의 경전주해서를 수록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대학자로서 이황(李滉), 이이(李瑀), 성혼(成渾), 조식(曹植), 박세채(朴世采), 김집(金集) 등 여러 사람의 저작을 수록하고 있다.

2.2.2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누판고」에는 옛사람의 이상적인 정치를 본받아 훌륭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가의 정치사상을 담은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웅(徐命膺)이 편찬한 「양한사명(兩漢詞命)」의 해제에서 “한나라 고조(高祖), 문제(文帝), 경제(景帝), 소제(昭帝), 선제(宣帝)와 후한의 광무(光武), 명제(明帝), 장제(章帝)가 친히 낸 과거시험문제와 조칙(詔勅) 가운데 법으로 삼을 만 한 것을 선정하고 대략 모아서 기술하고 두루 선유(先儒)의 논평을 채록하였다.”⁷³⁾고 하고,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의 해제에서는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에서 번다한 부분을 삭제하고, 「고려사(高麗史)」 가운데 가장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을 선별하여 증보하였다.”⁷⁴⁾고 하였다. 또한 「국조보감(國朝寶鑑)」

72) 위의 책, 어정, 27.

當宁甲寅 御定 親選朱子書牘中最粹者 百篇 印布中外 用作回醇反經之指南

73) 위의 책, 어정, 21.

漢高祖文帝景帝昭帝宣帝 後漢光武明帝章帝策制詔勅之可爲法則者 略摭註語 旁採先儒評覽

74) 위의 책, 자부, 유가류, 83.

取眞德秀衍義 刪其繁穢 以高麗史中可作鑑戒者 隨類增補

의 해제에서는 “역대 성조(聖朝)의 모훈(謨勳)과 공렬(功烈) 가운데 후대에 본받을 만한 것을 열거하였다.”⁷⁵⁾고 하여 역대 왕이나 정치가들이 필독해야 할 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구황촬요(救荒撮要)」의 해제에서 “구황(救荒)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서 편찬한 것”⁷⁶⁾이라고 평가하여,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서적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2.3 국가 변란 및 충의(忠義) 사상을 담은 경우

「누관고」에서는 임진왜란(壬辰倭亂), 계유정란(癸酉靖亂) 등 국가의 변란에 관한 내용과 이 같은 변란을 당해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몸 바친 충신, 열사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에 대해 그 내용을 밝혀 주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징비록(懲毖錄)」의 해제에서는 “만력연간(萬曆年間)에 왜적을 방어한 시말을 기록한 것이다.”⁷⁷⁾라고 하고, 강항(姜沆)의 「수은집(睡隱集)」 및 「간양록(看羊錄)」에서는 “일본 군국제도 및 한국에 온 적장의 시말이 자못 상세하다.”⁷⁸⁾고 해제하고 있다. 「진주서사(晉州敘事)」에서는 “만력 임진왜란 때 김천일(金千鎰), 황진(黃進), 최경회(崔慶會) 등이 성(城)을 사수하다 죽은 사건의 시말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⁷⁹⁾라고 하고, 「백운재실기(白雲齋實紀)」의 해제에서 저자인 “권응수(權應銖)가 만력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적을 격파하고 여러 차례 훌륭한 공로를 세웠다.”⁸⁰⁾고 하여 임진왜란에 관한 내용과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75) 위의 책, 어정, 21.

列聖朝謨勳功烈之可爲後世法者

76) 위의 책, 어정, 14.

又鈔救荒之最要者 名曰救荒撮要

77) 위의 책, 사부, 갑사류, 53.

萬曆間禦敵始末

78) 위의 책, 갑부, 별집류, 217.

日本郡國之制 及萬曆中東來敵將始末頗詳

79) 위의 책, 사부, 갑사류, 54.

敘萬曆壬辰之亂 金千鎰黃進崔慶會等 守城死事始末

일으켰거나, 몸 바쳐 싸우다 죽은 열사(烈士)들에 대해 평가해 주고 있다.

이밖에 김제민(金齊閔)의 문집인 「별봉집(鰲峰集)」의 해제에서 “그 보방요무(保邦要務) 42조는 만력연간에 선정된 것인데 적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는 책략을 많이 말하였다.”⁸¹⁾고 하여 임진왜란 때에 제시한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호수실기(湖叟實紀)」⁸²⁾ 「충렬록(忠烈錄)」⁸³⁾ 「정기록(正氣錄)」⁸⁴⁾ 「월봉집(月峰集)」⁸⁵⁾ 등 많은 책들이 있다.

또한 자신의 절개를 지켜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인록(三仁錄)」이 있는데 그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인(三仁)이란 고려 예조판서 김주(金澍), 조선 예조참판 하위지(河緯地), 거창 현감 이맹전(李孟專)을 말하니 모두 어진 사람들이다. 김주는 고려 말에 하위지와 이맹전은 장릉(莊陵) 때의 인물인데, 그 죽음과 정의(靖義)는 다르지만 높은 충성과 아름다운 절개는 한결같이 지성과 측달(惻怛)에서 나왔으니 마치 부절(符節)을 맞춘 듯하다. 세 인자의 명성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三仁者 高麗禮曹判書金澍 李朝禮曹參判河緯地 居昌縣監李孟專 皆善人也 澍之於麗末 緯地孟專之於莊陵 其去死靖義不同 而危忠嫻節之一出於至誠惻怛 則若合符節 三仁之名 庶無愧焉)⁸⁶⁾

조선 왕조에 영합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고려수절신(高麗守節臣) 가운데 한

80) 위의 책, 사부, 전기류, 64.

應錄當萬曆壬辰之亂 倡義旅擊敵 屢立奇功

81)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08.

其保邦要務四十二條 萬曆中選 多言禦敵保民之策

82) 위의 책, 사부, 전기류, 64.

萬曆壬辰之亂 世雅 倡義旅擊敵

83) 위의 책, 사부, 전기류, 65.

[金]應河 安東人 萬曆己未 從姜弘立軍 攻建州旅 力戰死之

84)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96.

壬辰之亂 倡義旅擊敵死

85)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12.

當萬曆壬辰之亂 擧家死於兵 順命亦被斫復蘇

86) 위의 책, 사부, 전기류, 55.

사람인 김주(金澍)와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킨 하위지(河緯地)와 이맹전(李孟專)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성심과 절개를 높이 기리고 있는 것이다.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에서는 “육선생은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등 세간에 말하는 노릉육신(魯陵六臣)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⁸⁷⁾라고 하고, 조려(趙旅)의 문집인 「어계집(漁溪集)」에서는 “세간에서 말하는 생육신(生六臣) 가운데 조려가 그 한 사람이다.”⁸⁸⁾라고 하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단종(端宗)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사육신(死六臣)과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난하며 벼슬에서 물러난 생육신(生六臣)의 충절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김상헌(金尙憲)의 문집인 「청음집(淸陰集)」에서 그가 명절로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고⁸⁹⁾ 하고, 김영(金垓)의 문집인 「계암문집(溪巖文集)」에서 “정운(鄭蘊)이 칭송하기를 우리나라의 백이(伯夷)라고 하였다.”⁹⁰⁾고 하여 그들의 절개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후대에 귀감(龜鑑)으로 삼고 있다.

「누판고」의 해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이유는 변란(變亂)의 내용을 잘 알아서 후세에 교훈을 삼고, 향후 이 같은 변란에 대비해야 하며, 또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과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신하로서의 의리와 충절을 지킨 충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2.2.4 후대에 경계가 될만한 내용을 담은 경우

「누판고」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신과 열사에 관한 저작과 신하로서의 의

87) 위의 책, 집부, 총집류, 160.
六先生者 朴彭年 成三問 …… 世所稱魯陵六臣 是也

88)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75.
世所稱生六臣 旅其一也

89)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19.
尙憲以名節聞天下

90) 위의 책, 집부, 별집류 234.
鄭蘊稱之爲東海伯夷

리와 절개를 지킨 인물의 저작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후대의 귀감(龜鑑)이 되도록 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당시의 역적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알림으로써 후대에 경계(警戒)로 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종조에 어제(御製)로 편찬한 「대훈(大勳)」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신(逆臣) 김일경(金一鏡), 목호룡(睦虎龍)이 왕세자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하여 무옥(誣獄)의 죄를 일으킨 사적을 두루 서술하여 태묘(太廟)에 고하고 중외(中外)에 반포하였으며, 전형을 맡은 신하에게 신칙하여 당파의 입장에서 쓰지 말고 번갈아서 사람을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歷叙逆臣金一鏡睦虎龍謀危儲闈 釀成誣獄之罪 告太廟 頒中外 節掌銓臣 勿以黨目 互對用人)⁹¹⁾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킨 김일경과 목호룡의 죄상을 밝혀서 후대에 경계하도록 하고 있다.

「천의소감(闡義昭鑑)」의 해제에서는 “경종 신축년부터 영종 을해년에 이르기까지의 역적 조태구(趙泰耆), 유봉휘(柳鳳輝), 이인좌(李麟佐), 윤지(尹志) 등이 역적 행위를 한 시말을 기록하였고, 간간히 기사 밑에 논단(論斷)을 지었다.”⁹²⁾고 하고, 「명의록(明義錄)」 「속명의록(續明義錄)」의 해제에서도 “을병흉도(乙丙凶徒)들이 역적모의를 한 전말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⁹³⁾라고 하여 당시에 역모에 가담한 사람의 죄상을 밝혀서 후대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도록 경계(警戒)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2.3 역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란 서적이 지니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희귀하거나 유일한 서적

91) 위의 책, 어제, 2.

92) 위의 책, 어정, 17.

起自景宗辛丑 迄于英宗乙亥 記逆賊趙泰耆柳鳳輝李麟佐尹志等 逆節始末 間著論斷于記事之下

93) 위의 책, 어정, 23.

當宁丙申奉教撰 記乙丙凶徒作逆之顯末

또는 학문이나 학파의 시원을 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역사적 가치는 1) 고서인 경우, 2) 학문이나 학파 등의 시원(始原)을 제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고서인 경우

이 유형은 고서의 역사성과 희귀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것이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부 도가류에 수록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양(伯陽)의 참동계(參同契)는 세간에서 역가(易家)라고 일컫지만 실체는 효상(爻象)을 빌려서 단약을 만드는 일을 논한 것이다. 단경(丹經) 중에 이 책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伯陽參同契 世稱爲易家 其實假借爻象 以論作丹之意 丹經中此爲最古)⁹⁴⁾

이처럼 「누판고」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자부 도가류에 수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책이 단경(丹經)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부 병가류에 수록한 「손무자(孫武子)」의 해제에서 “병가의 서적 가운데 지금까지 전하는 것으로 이 책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⁹⁵⁾라고 하고, 「오자(吳子)」의 해제에서 “그러나 여섯 편의 목록은 금본(今本)과 합치하니 진짜 고서이다.”⁹⁶⁾라고 하여 그 고서적 가치에 대해 평가해 주고 있다.

이 유형은 전술한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책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

94) 위의 책, 자부, 도가류, 115.

95) 위의 책, 자부, 병가류, 92.
兵家書之傳於今者 此爲最古

96) 위의 책, 자부, 병가류, 92.
然六篇之目 則與今本合 亦眞古書也

서 서지학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책 내용의 좋고 나쁨, 혹은 자신의 독서 취향 등에 따른 평가라기보다는 책이 갖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후학들 역시 그런 서적을 선택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2 학문이나 학파 등의 시원(始原)을 제시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학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독서를 하는데, 주제 분야 또는 학문의 시원(始原)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서적은 다음과 같다.

「누판고」의 집부 별집류에 수록한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황이 비로소 이 책을 보고 [주자를] 독실하게 믿게 되어, 그 책 가운데 날마다 학문을 하는데 가장 간절한 것을 뽑아서, 문리(文理)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간략히 주석을 달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주자의 책을 존경하고 숭배하게 된 것은 실제로 이 책으로부터 시작된다.(滉始見而篤信之 選其書牘中最切於日用學問者 遇文理難解 略綴註釋 東人之尊崇朱書 實權輿於是書)⁹⁷⁾

「누판고」에서는 통상 다른 목록에서 자부 유가류에 분류한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집부 별집류에 분류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자의 책을 신봉하게 된 것이 바로 이황의 「주자서절요」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어떤 일의 시작 또는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서 주자가 편찬한 「대학장구(大學章句)」, 「논어집주(論語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중용장구(中庸章句)」의 해제에서 “사서(四書)의 명칭이 여기에서 시작하였다.”⁹⁸⁾고 하고, 사부 전기류에 수록한 「회헌실기(晦軒實紀)」

97) 위의 책, 집부, 별집류, 168.

98) 위의 책, 경부, 사서류, 44.

의 해제에서는 “저자인 안유(安裕)(안향(安珦)의 초명)가 충렬왕 때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워서 유가의 교화를 일으켰는데, 정몽주(鄭夢周) 등 여러 사람이 그 문풍을 듣고 일어난 사람이다. 그런 까닭으로 후대에 그를 추대하여 동방 이학(理學)의 원조라고 하고 있다.”⁹⁹⁾고 하여 우리나라에 송나라의 성리학을 처음 수입하고 서원을 처음으로 설치한 안향의 업적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3.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누판고」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 수준평가에 대한 내용을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자료평가기준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장서개발론의 대학자인 카터(Carter), 케츠(Katz), 가드너(Gardner) 등이 주장한 장서평가이론의 핵심 사항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학자들의 장서평가 기준을 종합한 후에 그 기준을 「누판고」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평가와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희¹⁰⁰⁾는 「장서관리」에서 카터(Carter), 케츠(Katz), 가드너(Gardner), 스피러(Spiller) 등 장서개발 분야의 주요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 도서관 자료를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해 다양하게 기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 요소를 추려서 1) 저작사항에 관한 것으로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에 관한 것, 2) 내용에 관한 것으로 주제, 주제의 범위, 주제를 다루는 방식, 표현, 문체 등에 관한 것, 3) 물리적인 특성으로 활자, 지질, 제본, 삽화 등에 관한 것, 4) 도서관 장서로의 유용성 평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윤희윤¹⁰¹⁾도 그의 「장서관리론」에서 일반도서

四書之名 始此.

99) 위의 책, 사부, 전기류, 59.

裕當忠烈王時 捐私財創學宮 以興作儒化 鄭夢周諸人 皆聞其風而起者 故後世推爲 東方理學之祖

100) 송영희 외 3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125-127

101) 윤희윤, 「장서관리론」, (대구 : 태일사, 1999), 147

의 선택기준으로 1) 저자의 권위, 2) 주제와 범위, 3) 물리적 특성, 4) 독자에 대한 가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서양의 여러 학자들의 기준을 참조하여 그 주요한 골자를 추려서 구분한 것이다. 위의 두 사람의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뼈대는 동일하게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에 필자는 상기한 현대 문헌정보학자들이 제시한 장서평가기준 가운데 「누판고」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인 수준평가와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1) 저자사항, 2) 내용사항, 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3.1.1 저자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을 보면 저자의 권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경험이 많고, 다른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명한 학자의 저술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누판고」 역시 수록된 서적의 해제에서 저자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국가를 지배하는 사상적인 기반이 유교인 만큼, 공자를 시조로 그의 학문을 집대성한 주자와 정자 등 대 유학자들이 편수한 경전을 수록하였으며, 이황, 이이, 성혼 등을 위시한 한국의 대유학자들이 편찬한 서적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누판고」에서는 저자의 학식과 학문 뿐 아니라 저자가 지닌 인품과 문장력 등까지도 면밀히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자들, 각 분야의 주요한 인물, 문장이나 시가 빼어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이밖에 그 인물의 인물됨과 위업 또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명나라 선비의 종주인 설선(薛瑄), 우리나라의 선비 중에서 김안국(金安國), 김집(金集), 조식(曹植), 이황(李滉) 등 당시 선비들의 종주(宗主)의 역할을 하는 선비에 대해 높이 평가고,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중시한 지조와 충절을 지킨 인물로서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국가를

위해 현신한 선열들의 위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누판고」에서는 대문장가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대문장가로서 조선시대 사대부 문장의 표본적인 역할을 한 이제현(李齊賢)과 이색(李穡)의 문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박은(朴聞), 이안눌(李安訥), 노수신(盧守愼), 권필(權鞭) 등 여러 시인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문장은 뛰어나지만 글로 인해서 화를 입은 예로 김종직(金宗直)에 대해 논평하여 후대의 귀감을 삼게 하고 있다. 이밖에 집안이나 출신이 미천해도 학문성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누판고」에는 각 분야에 뛰어난 저자의 저작이 수록되었으며, 저자의 평가방식 또한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충실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내용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에서 내용 사항이란 각 주제, 주제의 범위, 표현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독자에게의 기여도,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정보의 정확성 등 주로 저작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¹⁰²⁾

「누판고」에서는 각 주제 분야에서 내용이 뛰어난 책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당시 책을 출판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책으로 출판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상에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누판고」에서는 내용이 좋은 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호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거들떠 볼만한 가치도 없는 책이라고 혹평을 가하는 등 수록된 도서들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책이 지닌 내용 자체가 뛰어난 서적, 기존의 여러 설을 모아서 집대성한 서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침서적인 내용이 담긴 서적, 학문의

102) 송영희 외 3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126

기원이 되는 서적,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중시한 의리와 충절 사상이 담긴 서적, 특정 서적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등 전반적으로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수한 내용이 담긴 서적이 수록되었다.

「누판고」에는 유가적인 질서와 반대되는 사상으로 노가(老家), 불가(佛家) 등의 서적도 수록되었는데, 주목할 사항은 당시에 이단(異端)으로 배척하는 노가와 불가의 서적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질서가 유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에서 이단으로 배척하는 불가와 도가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처럼 「누판고」에 수록된 도서는 각 주제 분야에서 내용적 가치가 높은 서적들을 알 수 있다.

3.1.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도서관에서의 유용성이란 소장된 책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이용될 것이며, 독자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한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가, 도서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 가 등에 중점을 둔 문제이다.¹⁰³⁾

정조가 왕명으로 전국에 소장된 책판목록을 조사해서 「누판고」를 편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마도 전국 각지에 분산 보존된 책판(冊版)의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의 선비들과 후학들은 이 책판목록과 거기에 수록된 해제를 통해서 수록된 도서 및 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독서할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독서생활이나 그 방향을 잡는데 지침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은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자사항과 내용사항이다. 즉, 책의 저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책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가가 결국 좋은 자료를 평가하고 선택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이

103) 위의 책, 126-127

다. 「누판고」에서는 저자와 내용에 가장 역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누판고」가 조선후기에 나온 것이고, 그 성격이 전국에 소장된 책판에 대한 해제목록이라는 점에서, 이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인 수준은 당시 상황과 목록의 성격을 감안해도, 현대의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훌륭한 책들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풍석 서유구 등이 편찬한 전국책판해제목록인 「누판고」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인 수준평가에 대해 고구(考究)한 것이다. 이 질적 평가유형은 「누판고」의 범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누판고」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를 일일이 검토하여 그 서적에 대한 질적 평가사항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유추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고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판고」에 수록된 610종의 서적 가운데 대강 240여종에 대해 평가사유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밝혔다. 필자는 「누판고」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인 수준을 1) 내재적 가치, 2) 사상적 가치, 3) 역사적 가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에 이를 현대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누판고」에 수록된 책은 당시에 이미 간행된 책판에 대한 목록이다. 당시 서적을 간행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으므로, 문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은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닌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 어떤 책이 출판되고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출판 정보를 제시하고, 이 목록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해제를 통하여 선비들이 독서할 책을 선정할 때 일종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판고」에서는 수록된 도서에 대해 해제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책의 내용과 저자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각 주제 분야에서 내용이 가장 뛰

어난 서적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거들떠 볼만한 가치가 없는 서적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평을 가하고 있다. 선독(選讀)에만 치중할 경우, 학문의 깊이와 폭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저작에 대해 보충적인 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문을 집대성한 서적을 알려줌으로써 독서의 불균형을 보완하였다.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하여 수록된 서적을 평가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침이 되는 '실용성'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당시 유가적인 질서 속에서 당시의 지배이념에서 이단시 했던 도가와 불가의 서적에 대해 대단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서의 개념을 강조하여 책의 저자나 내용에 대한 관심 외에 소위 서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책이 갖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후학들 역시 그런 서적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기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문의 시원(始原)을 알려줄 만한 책에 대해 평가를 하여 후학들이 학문적 깊이를 갖추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은 유가질서하의 신분제 사회였다. 「누판고」는 당시에 이미 간행된 책판에 대한 목록이므로, 거기에는 유가, 불가, 도가, 개인, 관청, 왕실 등 다양한 목적 속에서 간행된 다양한 성격을 지닌 책판이 수록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지배이념인 유가사상 체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해제에서는 당시 이단시 하였던 도가와 불가의 서적에 대해 비판적이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당파의 문제에 있어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사상과 당파를 초월하여 양서(良書)에 대해 평가한 내용들은 후학들에게 독서의 지침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보다 완숙하고 폭 넓은 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누판고」의 해제를 통해서 본 수록 도서의 질적인 수준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상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지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평가에 있어 대단히 객관적이고 포용성을 지녔으며,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양서(良書)의 평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주진. “徐有築 著 鏤板考.” 『한국학』 제2집(1974), 13.
- 김윤식. “鏤板考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9.
-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제7집(1976), 580-598.
- 리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 30집(2005), 247-281.
- 박문열. “京外鏤板과 鏤板考 와의 關係.” 『청주대학교논문집』 제18 집(1985), 91-120.
- 서유구. 『鏤板考』. 사본, 7권 3책.
- 서유구. 『鏤板考』. 홍명희 교정본, 서울: 보련각, 1968.
- 송영희 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5.
- 윤희윤. 『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1999.
- 천혜봉.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